

— S-115 —

한국형 출혈열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동반된 좌각차단 1 예

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김님수* · 마명신 · 김원 · 박성광 · 강성기

한국형 출혈열은 한단바이러스 혹은 한단 관련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고열, 저혈압, 위장관 증상, 출혈증상 및 신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. 한국형 출혈열의 사망률은 5%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수, 급성 신부전, 폐부종, 감염, 뇌증, 위장관 출혈 등이 있으며 드물게 심장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. 한국형 출혈열에 동반되는 심장 합병증으로는 고혈압, 1도 방설전도장애, 방설 접합부 빈맥 등의 부정맥, 심방화장 그리고 심실비대 등의 보고는 있었지만 좌각차단이 발생한 보고는 국내외에서 거의 보고된 바 없다. 본 저자들은 한국형 출혈열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동반된 좌각차단 1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.

환자는 67세 여자환자로 2주 전부터 발생한 고열, 떨림 그리고 오심 및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. 이하 소견상 내원시 혈압 90/50 mmHg, 맥박 70/min, 체온은 37.5°C였고,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. 두부 소견상 인구개와 경구개에 출혈 및 점상 출혈이 있었고 복부소견으로 좌상복부 부위에 암봉이 있었다. 검사실 소견상 혈소판이 70,000/mm³, 적혈구 침강속도 36 mm/h, 혈청생화학 검사소견으로 BUN 63 mg/dl, Creatinine 3.7 mg/dl, SGOT 221 IU/L, SGPT 105 IU/L, CK 194 IU/L, LDH 2021 IU/L로 상승되었고 CK-MB fraction은 정상이었다. HCV Ab는 양성이었다. 소변검사상 단백뇨는 3+, RBC many/HPPF, 24시간 단백 정량 검사는 1560 mg이었다. Hantaa virus 항체의 역기는 1:640 이었다. 환자는 상기 임상적 소견 및 검사실소견으로 한국형 출혈열로 진단받았다. 심전도 소견으로 내원 당시 좌각차단 소견을 보였고 입원 1일째 정상 소견이었다가 입원 3일째 다시 좌각차단 소견을 보았으며 그후 검사상 정상이었다. 심초음파는 정상이었다. 이 환자는 항생제와 수액요법 그리고 이뇨제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 및 검사 소견이 호전되고 심전도상 좌각차단 소견도 정상으로 되어 퇴원하였다.

— S-116 —

Chinese Herbs 중후군 1례
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남기덕*, 이태원, 흥성표, 임천규, 김명재

Chinese Herbs 중후군은 1993년 삶을 빼기 위해서 한약재를 복용한 젊은 여자들 중 일부에서 신장이 정상 사구체와 간질성 섬유화(interstitial fibrosis) 소견을 보이면서 1~2년 내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사례를 보고하면서 처음 불여진 진단명으로 유럽에서 몇 예가 발표되었고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 드문 질환으로, 그 후 Chinese Herbs 중후군의 원인이 한약재 성분 중 Aristolochic acid라고 밝혀졌다. Aristolochic acid는 한약재인 목통의 주성분으로 이뇨 작용과 통유 작용이 있어 배뇨 곤란이나 콩팥에 의한 부종과 유증 분비가 적을 때 흔히 사용된다. 저자들은 Aristolochic acid가 함유된 목통을 복용한 후 신장이 정상 사구체와 간질성 섬유화 소견을 보이며 아급성으로 진행하는 Chinese Herbs 중후군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(증례) 30세 여자로 내원 7개월 전부터 시작된 식욕 저하와 전신 쇄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 상 특별한 병력 없었고 내원 8개월 전 정상 자연 분만 후 모유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목통 성분이 포함된 한약을 15일 간 복용하였다. 수일 후부터 식욕 저하, 오심, 구토 증상 있고 이후 약 10 kg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. 2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혈색소 11.3 g/dL, 백혈구 5100/mm³, 혈소판 152,000/mm³ 이었고 일반 생화학적 검사에서 BUN/Cr 26.8/2.9 mg/dL, Na-K-Cl 142.3-1.119 mEq/dL 이었다. 동맥혈 검사상 pH 7.312, PaCO₂ 25.7 mmHg, PaO₂ 118.2 mmHg, HCO₃ 13.2 mmol/L 이었다. 소변 검사상 포도당 ≥ 1.0 mg/dL, pH 8.0, 백혈구 0~1/HPF, 적혈구 0~1/HPF 이었으며, 24시간 소변 검사상 단백질 1.32g/2500mL, 포도당 390 mg/dL, Ccr 25 mL/min 이었다. NH₄Cl 부하 검사상 소변 pH가 1회 5.5 이하로 떨어졌고, 신장 초음파상 크기는 오른쪽이 11 cm, 왼쪽이 11.5 cm 이었다. 신 조직 검사상 정상의 사구체와 간질성 섬유화(interstitial fibrosis) 소견이 보였다. 3주 후 BUN/Cr은 35.4/4.17 mg/dL 였고, 다시 2주 후는 46/5.7 mg/dL로 증가하는 소견 보였다. 혈중 음이온 간격은 13 이었다. 4주 후 실시한 24시간 소변 검사상 단백질 2244mg/2200mL, Ccr 10.5 mL/min 이었다. 당시 복용한 한약에 목통 성분이 있었으며 이것은 Aristolochic acid를 함유한 것이다. 환자는 Chinese herbs 중후군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 (1mg/kg) 후 Cr 6.2mg/dL에서 2주 후 3.6 2mg/dL로 감소한 상태로 퇴원하였다..